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0년 5월호

Contents

I. 한일경제 동향	2
1. 한일 무역 동향	2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5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6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9
1. 일본 무역 동향	9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12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5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20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25
III. KJCF & KJE News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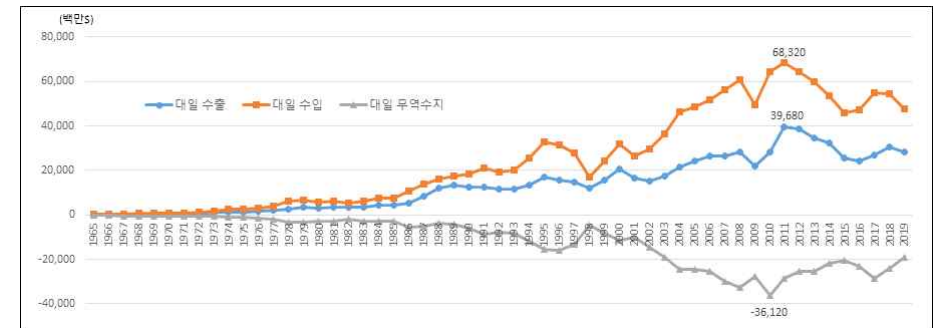
I. 한일경제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으며,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1965년부터의 통계에서 한 해의 예외도 없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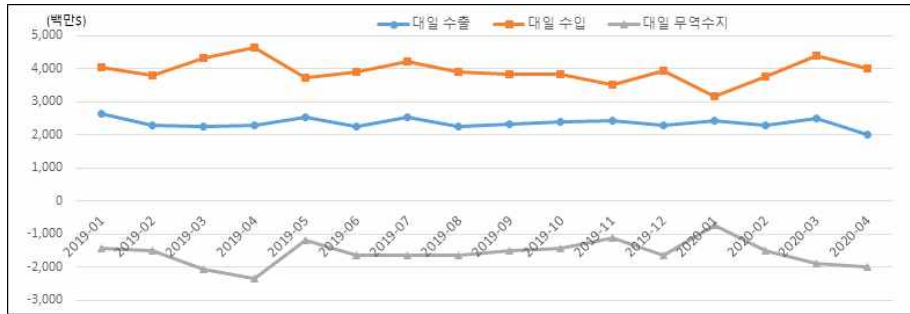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COVID-19 발생으로 최근 대일 수출이 크게 감소함
-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출은 약간 감소하는 정도였는데,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4월에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함
- 발표 이후 대일 수입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2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4월에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

- 발표 이후 대일 무역적자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2월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무역의 2020년 4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0년 4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일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25.1%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12.0% 감소하여 20.0억 달러가 됨
-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15.8%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게 13.9% 감소하여 39.9억 달러가 됨
- 대일 무역수지는 19.9억 달러로 한국 전체 무역적자 13.9억 달러보다 많았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은 5.5%, 수입은 10.5%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0년 4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36,550	-25.1	37,943	-15.8	-1,393
일본 부분	2,004	-12.0	3,989	-13.9	-1,985
일본 비중	5.5		10.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표2> 및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입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음
- 수출 경우는 전년동월 대비 금속광물이 77.5%, 정밀화학제품이 38.5%, 산업용전자제품이 33.2% 증가한 반면, 광물성연료가 62.8%, 석유화학제품이 24.0%, 철강제품이 23.5% 감소함
- 수입 경우는 전년동월 대비 산업용전자제품이 31.4%, 기초산업기계가 12.4%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제품이 48.3%, 수송기계가 34.5%, 산업기계가 20.8% 감소함

〈표2〉 한국의 2020년 4월 주요 對日 수출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4월(백만\$, %)			2020년 4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277	-8.3	-2,356	2,004	-12.0	-1,985
1	철강제품	325	-5.2	-282	249	-23.5	-240
2	정밀화학제품	155	-2.1	-298	214	38.5	-176
3	광물성연료	400	17.0	346	149	-62.8	124
4	전자부품	125	-17.6	-403	138	9.8	-332
5	금속광물	73	-19.3	24	130	77.5	79
6	산업용전자제품	94	-2.3	-143	125	33.2	-185
7	농산물	99	3.7	66	101	2.7	87
8	석유화학제품	127	-39.9	-252	97	-24.0	-99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80	-0.7	-41	78	-2.9	-41
10	플라스틱제품	66	4.3	-132	71	8.4	-130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0년 4월 주요 對日 수입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4월(백만\$, %)			2020년 4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4,633	-6.2	-2,356	3,989	-13.9	-1,985
1	철강제품	606	0.8	-282	489	-19.3	-240
2	전자부품	528	0.7	-403	470	-10.9	-332
3	정밀기계	480	-33.8	-449	465	-3.2	-416
4	정밀화학제품	452	2.2	-298	390	-13.8	-176
5	산업용전자제품	236	-17.6	-143	310	31.4	-185
6	기초산업기계	210	-15.5	-146	236	12.4	-172
7	플라스틱제품	198	-1.3	-132	201	1.8	-130
8	석유화학제품	379	9.8	-252	196	-48.3	-99
9	수송기계	285	17.4	-193	187	-34.5	-128
10	산업기계	199	1.1	-128	157	-20.8	-91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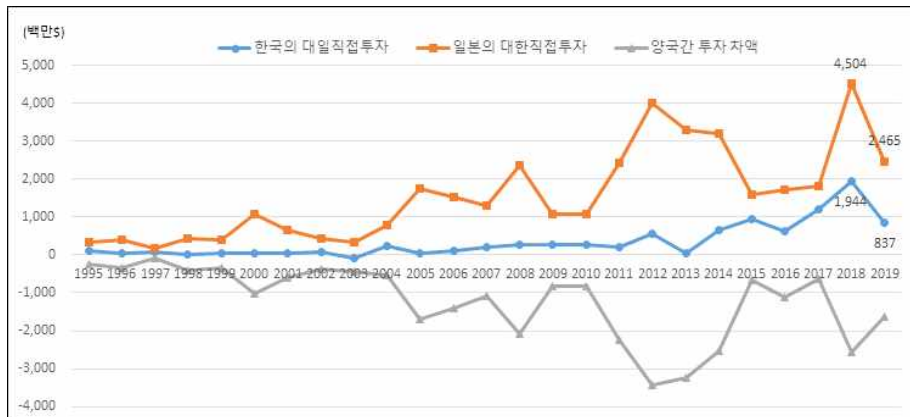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한일 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그림3>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4>는 최근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실적은 2020년 2월과 3월의 경우 1조 3,275억 엔에서 2조 2,890억 엔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그에 반해 같은 기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는 124억 엔에서 95억 엔으로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서 0.4%로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실적은 2020년 2월과 3월의 경우 1,132억 엔에서 3,569억 엔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그에 반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는 47억 엔에서 39억 엔으로 감소하였고, 대내직접투자 전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1.1%로 감소하였음
- 전반적으로 2020년 3월 직접투자 분야에서의 한일 교류는 전월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4>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17,910	-1,645	13,275	1,132	22,890	3,569
한국 부분(억¥)	28	67	124	47	95	39
한국 비중(%)	0.2	-	0.9	4.2	0.4	1.1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3월 9일, 4월 8일, 5월 13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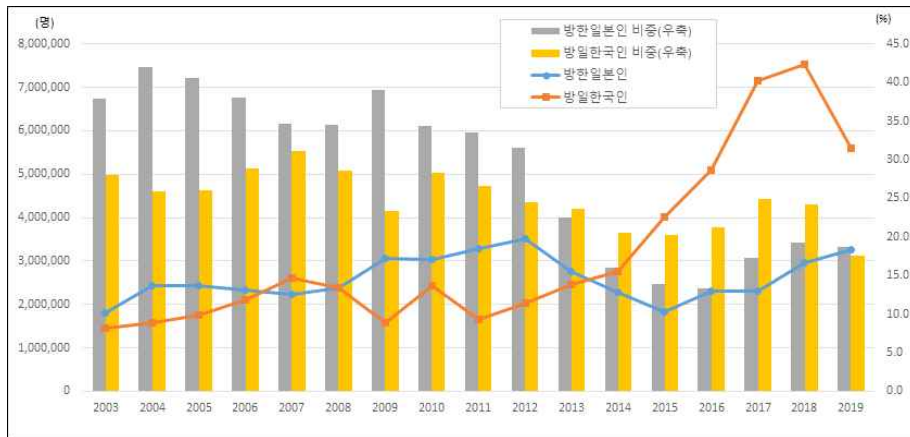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함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558만 명이 됨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여 327만 명에 달함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일외국인 총수는 3,188만 명이었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1,750만 명이었음)

〈그림4〉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5〉는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방일한국인 수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크게 감소하였고, 최근 더욱 감소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하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바뀜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함
-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3월과 4월의 방일한국인 수는 16,700명과 300명, 방한일본인 수는 8,347명과 360명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임

〈그림5〉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4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4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크게 줄어든 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방한외국인 전체 수는 29,415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8.2%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36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하였음
- 방문자 수 절대치도 매우 낮지만, 방한일본인의 감소 정도가 전체 경우 보다 더 커서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1.2%로 전월 대비 크게 낮아짐
-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2,9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3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하였음
- 방일한국인 감소 정도가 전체 경우 보다 약간 더 커서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10.3%로 전월 대비 낮아짐

〈표5〉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4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19년4월	2020년4월	증감률		2019년4월	2020년4월	증감률
전체	1,635,066	29,415	-98.2	전체	2,926,685	2,900	-99.9
방한 일본인	290,092	360	-99.9	방일 한국인	566,624	300	-99.9
일본인 비중	17.7	1.2		한국인 비중	19.4	10.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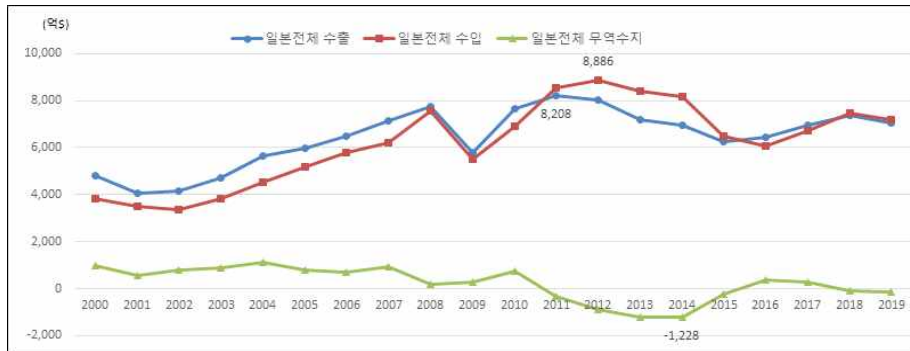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1. 일본 무역 동향

□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보인 후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였음

<그림6>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무역의 2020년 4월 상황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4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21.9% 감소하여 5조 2,060억 엔이었음

- 수입은 원유, 석탄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7.1% 감소하여 6조 1,379억 엔이었음
- 무역수지는 2020년 3월에는 흑자(54억 엔)였으나, 4월에는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적자(9,319억 엔)로 바뀜

<표6> 일본무역의 2020년 4월 상황

	2019년 4월	2020년 4월	증감률
수출(백만¥, %)	6,664,294	5,206,030	-21.9
수입(백만¥, %)	6,605,306	6,137,901	-7.1
수지(백만¥, %)	58,988	-931,871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5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7>은 일본 전체 무역의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60.2%, 수입의 51.4%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11.3% 감소한 반면, 수입은 2.2% 증가하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2.7%, 수입의 28.3%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여 일본의 對中 무역적자는 5,513억 엔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대만은 수출의 7.6%, 수입의 4.3%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여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335억 엔으로 0.4% 증가하였음
- 한국은 수출의 7.9%, 수입의 4.0%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여 일본의 對韓 무역흑자는 1,659억 엔으로 13.2% 감소하였음
- 미국은 수출의 16.9%, 수입의 11.4%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여 일본의 對美 무역흑자는 1,798억 엔으로 75.3% 감소하였음
-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전반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독일에 대해 전년대비 수출이 22.1%, 수입이 7.7% 감소하였음
- 영국에 대해 전년대비 수출이 48.1%, 수입이 24.5% 감소하였음

〈표7〉 일본 무역의 2020년 4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5,206,030	100.0	-21.9	6,137,901	100.0	-7.1	-931,871	-
아시아	3,133,543	60.2	-11.3	3,157,464	51.4	2.2	-23,921	-
중국	1,183,814	22.7	-4.0	1,735,113	28.3	11.8	-551,299	72.5
홍콩	271,899	5.2	-10.6	4,827	0.1	-65.4	267,072	-8
대만	396,991	7.6	6.4	263,464	4.3	9.8	133,527	0.4
대한민국	412,244	7.9	-10.6	246,346	4.0	-8.8	165,898	-13.2
싱가포르	162,913	3.1	-17.8	81,065	1.3	14.8	81,848	-35.8
태국	232,176	4.5	-16.4	219,427	3.6	0.5	12,749	-78.5
말레이시아	94,234	1.8	-28.1	102,502	1.7	-38.8	-8,268	-77.3
인도네시아	96,974	1.9	-35	136,331	2.2	-7.1	-39,357	-
필리핀	56,030	1.1	-43.8	56,094	0.9	-36.8	-64	-
베트남	147,134	2.8	0.2	203,057	3.3	3.4	-55,923	12.6
인도	43,017	0.8	-56.9	44,096	0.7	-9.5	-1,079	-
대양주	97,041	1.9	-47.4	415,164	6.8	-10.3	-318,123	14.3
호주	79,894	1.5	-45.4	370,302	6.0	-8.8	-290,408	11.8
뉴질랜드	9,964	0.2	-51.6	26,876	0.4	-15.2	-16,912	52.2
북미	920,439	17.7	-39.1	814,937	13.3	1.5	105,502	-85.1
미국	879,685	16.9	-37.8	699,862	11.4	1.8	179,823	-75.3
캐나다	40,753	0.8	-57.6	114,331	1.9	-0.5	-73,578	291.1
중남미	197,849	3.8	-19.3	272,377	4.4	-0.4	-74,528	163.1
서유럽	549,034	10.5	-30.4	770,639	12.6	-11.5	-221,605	167.9
독일	146,359	2.8	-22.1	202,225	3.3	-7.7	-55,866	79.7
영국	65,796	1.3	-48.1	55,186	0.9	-24.5	10,610	-80.2
프랑스	40,419	0.8	-36.8	74,688	1.2	-22.1	-34,269	7
네덜란드	101,765	2.0	-16.9	30,274	0.5	5.7	71,491	-23.7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05,890	2.0	-34.1	159,675	2.6	-24.1	-53,785	8.5
중동	152,588	2.9	-6.2	480,610	7.8	-39.6	-328,022	-48.2
아프리카	49,647	1.0	-36.2	67,029	1.1	-32.8	-17,382	-20.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5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8〉은 일본전체 무역의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 경우는 모든 품목에서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화학제품, 원료별제품, 전기기기 등 일부 품목에서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음
- 수출 경우는 구성비가 가장 높은 일반기계(19.9%)가 23.2%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기기기(19.4%)가 8.8%, 수송용기기(16.6%)가 45.5% 감소하였음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동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송용기기의 수출 감소가 수출 전체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수입 경우는 구성비가 가장 높은 광물성연료(16.1%)가 32.6%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기기기(15.6%)는 1.1% 증가하였고, 기타(13.7%)는 8.3% 감소하였음

- 원유,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수입 감소가 수입 전체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표8〉 일본 무역의 2020년 4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가액	구성비	증감률
총액	5,206,030	100.0	-21.9	6,137,901	100.0	-7.1
1 식료품	62,247	1.2	-9.0	634,914	10.3	-5.9
2 원료품	80,983	1.6	-17.1	406,091	6.6	-3.0
3 광물성연료	65,659	1.3	-40.0	990,228	16.1	-32.6
4 화학제품	742,941	14.3	-6.3	755,392	12.3	13.2
5 원료별제품	625,310	12.0	-14.5	673,422	11.0	12.3
6 일반기계	1,034,048	19.9	-23.2	616,958	10.1	-4.3
7 전기기기	1,009,951	19.4	-8.8	959,881	15.6	1.1
8 수송용기기	864,541	16.6	-45.5	260,280	4.2	-1.7
9 기타	720,349	13.8	-12.7	840,736	13.7	-8.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5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7〉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9>는 2020년 3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외직접투자 2조 2,890억이 대내직접투자 3,569억 엔을 크게 초과하여 대외-대내 차액은 1조 9,321억 엔에 달하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지역적으로 유럽(31.2%), 아시아(21.9%), 중남미(21.9%), 북미(21.7%)로 비교적 균형 있게 분산되어 있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네덜란드에 대한 투자가 6,034억 엔(26.4%)로 가장 많았고, 미국에 대한 투자가 4,776억 엔(20.9%)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독일에 대한 투자는 실행금액보다 회수금액이 더 많아 순투자가 마이너스가 되었음
- 2020년 2월의 대내직접투자는 3,569억 엔에 불과하였고, 아시아로부터의 투자가 전체의 70.0%를 차지하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홍콩(1,051억 엔, 29.4%), 스위스(834억 엔, 23.4%), 태국(537억 엔, 15.0%) 등이었음
 -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경우는 순투자가 각각 -1,163억 엔, -343억 엔, -141억 엔, -11억 엔으로 실행금액보다 회수금액이 더 많았음

〈표9〉 일본 직접투자의 2020년 3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22,890	100.0	3,569	100.0
아시아	5,006	21.9	2,500	70.0
중국	1,007	4.4	325	9.1
홍콩	328	1.4	1,051	29.4
대만	280	1.2	150	4.2
한국	95	0.4	39	1.1
싱가포르	562	2.5	272	7.6
태국	810	3.5	537	15.0
인도네시아	538	2.4	17	0.5
말레이시아	191	0.8	103	2.9
필리핀	115	0.5	2	0.1
베트남	221	1.0	1	0.0
인도	821	3.6	-	-
북미	4,972	21.7	430	12.0
미국	4,776	20.9	441	12.4
캐나다	196	0.9	-11	-0.3
중남미	5,002	21.9	390	10.9
대양주	641	2.8	-140	-3.9
호주	515	2.2	-141	-4.0
뉴질랜드	67	0.3	2	0.1
유럽	7,132	31.2	386	10.8
독일	-217	-0.9	-343	-9.6
영국	1,135	5.0	-1,163	-32.6
프랑스	42	0.2	364	10.2
네덜란드	6,034	26.4	295	8.3
중동	53	0.2	3	0.1
아프리카	83	0.4	-	-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5월 13일)에 근거하여 작성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0년 5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5월 28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0>과 같음

<표10>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8년	2019년	2019년 7-9월	2019년 10-12월	2020년 1-3월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4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3	0.7	0.0	-1.9	-0.9				
<개인소비> 소비종합지수(실질)	0.1	0.1	0.4	-3.0	-0.8	1.2	-0.9	-3.5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자수(수송기계제외)	3.9	-5.8	-0.7	-9.5	-5.7	0.3	-5.7	-9.3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4.2 -2.3	90.5 -4.0	90.6 -5.4	86.5 -9.4	86.3 -9.9	81.3 -10.1	87.1 -12.3	90.5 -7.6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8.4	10.1		3.9	2.5	-19.4	13.0	8.0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7 2.8	-4.3 -1.1		-3.8 -4.5	-5.5 -7.0		-2.4 -17.3	P -11.2 P -2.5	P -21.4 P 1.3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1	-3.0	-1.1	-6.8	-4.5	-2.4	-5.7	-5.2	
<법인 경상이익> 전체규모-전체산업	3.7	-3.5	-5.3	-4.6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235 -2.0	8,383 1.7		2,211 6.8	2,164 12.9		651 10.7	740 11.7	743 15.1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4	2.3	2.3	2.4	2.4	2.4	2.5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2.6 1.0	0.2 0.5	-0.9 0.3	0.3 0.5	0.6 0.5		0.8 0.4	-0.4 0.4	P -2.3 0.1
<금융> 넷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2,310 110.40	21,697 108.99	21,264 107.31	23,041 108.72	21,808 108.79		23,180 109.96	18,974 107.29	19,208 107.93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0년 5월)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감염증의 영향으로 급속한 감소가 계속되고 있음
 - 3월 ‘가계조사’에서 실질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4.0% 감소하였고, 3월 ‘상업동태 통계’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합 상태이고, 소비자 심리는 한층 악화되고 있음
 - 감염증과 그에 동반한 자숙 활동에 따라 사람들은 선택적 소비를 하고 있음
 - 여행은, 4월말-5월초의 대형(황금)연휴 기간 중 신칸센 및 항공기 이용실적이 전년 대비 90%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외식은 4월의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휴업의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가전판매는 일부 품목은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신차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소비는 감염증 영향으로 급속한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감염증 영향으로 낮은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최근 약세 기조를 보임
 - ‘법인기업동태季报’ (10-12월期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19년 10-12월期는 전기 대비 4.2% 감소하였는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0% 감소, 비제조업이 3.8% 감소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최근 약세이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일본은행 短観(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3월 조사에 따르면, 전산업의 2019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2020년도 계획도 증가가 예상됨
 - 短観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에서는 과잉상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완화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최근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감소와 장래가 불투명하는 인식의 증가로 당분간은 신중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건설은 약세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일부 약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최근 보합 상태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감소세가 멈추는 움직임이 보임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3월에 전월 대비 3.9% 증가하여 연율 환산으로 90.5만호가 됨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감염증 영향에 따른 거래 억제도 있어서 감소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유지되고 있음
 - 3월의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 대비 4.6% 증가, 4월의 공공공사 하청금액은 전월 대비 9.2% 감소, 3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8.6% 증가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감염증 영향으로 인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수입은 감염증 영향은 있지만 최근 감소세가 멈추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수지는 적자로 됨
 - 수출은 급감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미국 및 EU 쪽 수출은 급감하고 있고, 기타 지역 쪽 수출은 감소하고 있음
 - 4월의 방일 외국인수는 99.9% 감소함
 - 수입 경우는 감염증 영향은 있지만 최근 감소세가 멈추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최근 감소세가 멈추고 있고, 미국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약세임
 - 4월의 무역수지는 수출금액 감소에 따라 적자로 바뀌었음

[기업 활동 및 고용]

- 기업의 생산은 감염증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음
 - 광공업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데, 3월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3.7% 감소하였고, 3월 광공업제조지수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4월은 전월 대비 1.4% 증가, 5월은 1.4%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는 수송기계는 대폭 감소, 생산용 기계는 감소,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는 회복 상태임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업황 판단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도산 건수는 증가추세가 나타남
 - 일본은행 3월 短觀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 전년 대비 0.7% 감소, 하반기 0.8% 증가가 예상되고, 경상이익은 상반기 7.2% 감소, 하반기 2.9%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도 감염증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 도산 건수는 3월 740건, 4월 743건으로 되었고, 부채총액은 3월 1,059억 엔, 4월은 1,449억 엔으로 됨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가 확대되고 있음
 - 완전실업률은 3월에 전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하여, 2.5%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증가함
 - 고용자 수는 최근 보험권내로 추이하고 있고, 신규 구인 수는 감소하고 있음
 - 유효구인배율은 낮아지고 있고, 제조업의 잔업시간은 감소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 총액은 최근 보험권내로 추이하고 있고,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험권내에서 움직이고 있음
 - 일본은행 3월 短觀에 따르면 기업들의 고용인원 판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약해지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고용조정 움직임에 따라 약세가 한층 확대될 우려도 있음

[물가 및 금융]

- 국내 기업물가는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험상태임
 - 4월 국내 기업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전월 대비 1.4% 하락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도 하락하고 있음
 -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최근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보면 4월에는 전월 대비 0.4% 포인트 상승하여 70.7%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는 소비세 인상 등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보험권내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하락-상승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고-엔저 추세를 보임
 - 주가는 19,200엔대에서 20,100엔대까지 상승한 후 19,600엔대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21,200엔대로 상승함
 -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은 107엔대에서 106엔대로 엔고 방향으로 추이하다가 107엔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6%대에서 -0.01%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최근 악화되고 있음
 - 4월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고, M2는 전년 대비 3.7% 증가함






□ 일본 정부의 2020년 5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5월 28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및 201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그리고 디스플레이션의 탈피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동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2019’, ‘성장전략 실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성장능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모두가 활약할 수 있고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세 대형 사회보장 제도를 실현하고자 함
- 일본 정부는 COVID-19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함
 - 5월 4일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선언 기간을 4월 31일까지 연장한 다음, 5월 25일까지 도도부현 전체에 대해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함
 - 감염증 확대 방지책을 계속 강구하면서 사회경제활동의 레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음
 - 고용·사업·생활을 지켜내 가며 경제 회복과 사회변혁 추진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도 제1차 보정예산을 포함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 (4월 20일 閣議 결정)을 가능한 한 신속히 실행하고, 동시에 제2차 보정예상(5월 27일 概算 閣議 결정)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조기성립에 노력하고자 함
- 일본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함
 - 일본은행은 기업 등의 자금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함
 - 금융시장 안정 유지의 관점에서 4월 27일 금융완화를 한층 강화하였고, 5월 22일에 새롭게 자금공급 수단의 도입을 결정함
 - 일본은행은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음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정부의 경제 관련 대응

- 공급망 일본 국내 회귀 지원, 글로벌 전개 심화도 과제 (닛케이신문, 20.5.3)
 - COVID-19로 인해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마스크와 의료기기 등이 일본에 들어 오기 어렵게 됨
 - 국내 회귀 촉진 보조금 2,200억 엔을 포함시켰으나 부드럽고 강고한 공급망 구축에는 아직 과제가 남음
 - 경제산업성의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에 의하면, 제조업 매출 중 해외 생산 비율은 17년도 시점에서 25.4%임
 - COVID-19 종식 후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안전 보장이나 효율성, 코스트 등 여러 가지 요소의 밸런스를 근거로 한 글로벌한 공급망의 재구축과 심화가 시험됨
- 긴급사태 선언이 5월 말까지 연장되면서 경제 추가 침체가 불가피해 짐 (아사히신문, 20.5.5)
 - 백화점·외식·자동차 산업에서 감소가 심각하며, BNP파리바증권의 이코노미스트는 4-6월기 GDP 성장률을 전기대비 연율 마이너스 33.0%로 예상
 - 월세 지원, 고용조정 보조금 확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 도쿄상공리서처에 의하면, 4월말 시점에서 감염 확대의 영향에 의한 기업 도산은 100건을 넘어, 350사를 넘는 상장기업이 실적 예상의 하향 수정을 발표

4월의 경제지표가 일제히 크게 악화			
	3월		4월
백화점 (매상고)	-33.4%		7-8할 감소 (대기업 4사의 속보치)
외식 (매상고)	-17.3% -41.4%(그 중 선술집)		더욱 악화 전망
신차판매 (대수)	-9.3%		-28.6%
항공기 (대형2사 여객수)	7할 감소(국제선) 6할 감소(국내선)		9할 감소 (국제, 국내)
코로나 관련도산 (건수)	31건		108건
각 업체단체 및 기업, 제국데이터뱅크 자료로부터. 수치는 전년동월 대비. 도산건수는 각 월말까지의 누계			

- 긴급사태 선언 연장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NHK, 20.5.5)
 - 긴급사태 선포 연장에 대해서 민간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적인 손실이 개인소비 중심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
 - 노무라 종합 연구소의 키우치 노보리에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금년 4월부터 9월 까지 개인 소비만 47조 엔이 없어서, 2020년 GDP가 8.5% 하강될 것으로 시산하고 있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쿠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인 소비 및 다양한 기업의 투자 등이 정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산한 결과, GDP는 모두 45조 엔, 비율로 따지면 8.4%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에 지속회급부금, 8월에 280억 엔 지급 (마이니치신문, 20.5.8)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기자 회견에서 매상이 반감한 중소·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속회급부금에 대해 “1월에 신청 접수를 개시해 8월에 약 2만 3,000건, 총액 약 280억 엔이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함
 - 지속회급부금은 2020년 1~12월 중 어느 달이라도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50% 이상 줄어든 경우, ‘그 달의 매상고를 12배’ 해서 전년 1년간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지급함
 - 중견·중소법인은 최대 200만 엔, 개인사업주는 최대 100만 엔 수급할 수 있음
- 각지의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물산전에 힘을 쓰고 있음 (NHK, 20.5.11)
 -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거나, 백화점 등에서의 물산전이 중지되고 있어서 지자체별 온라인 물산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후쿠오카현은 2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 라쿠텐시장에서 식품과 가구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물산전을 시작함
 - 홋카이도도 특산품을 판매하는 라쿠텐시장과 야후 쇼핑 특설 사이트에서 지난달부터 캠페인을 시작하였음
 -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都城市)도 COVID-19의 영향으로 판로를 잃은 지역 식품 등의 메뉴를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음
 - 외출 자숙이나 백화점 등의 휴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터넷에 활로를 찾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 같음
- 긴급사태 해제에도 방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활동 재개를 (요미우리신문, 20.5.15)
 - COVID-19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을 39개현에서 해제했으며, 도쿄도 등 8개 도도부현에서는 계속함
 - 감염 상황과 의료 제공 체제, 검사 체제 등 선언을 해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감염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1주일 신규 감염자 수가 10만명 당 0.5명 이하’로 규정했음

- 일본정부는 COVID-19 확대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입국제한에 대해 3단계로 완화하는 계획으로 조정에 들어감 (닛케이신문, 20.5.21)
 - 일본정부는 21일 오사카 등 3부현의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결정했고, 경제 활동을 단계적으로 되돌리며 해외와의 왕래도 조금씩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단계로는 비즈니스 고객과 연구자, 2단계로는 유학생, 3단계로 관광객으로 하는 방안이 부상되었음
 - 일본정부는 상대국의 감염 상황을 분석해 완화 가능한 국가 및 시기를 모색함
 - 일본정부가 원칙적으로 입국을 거부하는 대상은 100개 국가·지역에 이르며, 다른 모든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서는 호텔 등에서 14일간 대기할 것을 요청함
 - 일본정부 관광국 통계(추정치)에 의하면 4월 방일객수는 2,9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하였음
-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긴급사태 전면해제를 국회에 보고 (산케이신문, 20.5.25)
 -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이 25일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에서 COVID-19 감염 확대에 따라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전면해제 하는 것을 보고했음
 -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에는 감염 확대를 예방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정착을 전제로 하여, 일정 이행기간을 두고 외출자제나 행사개최 제한 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과 선언 해제 후에도 기본적인 감염방지를 철저히 하면서 감염 확대 경향이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함
- 정부는 5월 월례정보보고에서 국내 경기가 급속한 악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힘 (산케이신문, 20.5.28)
 - 경기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선언의 전면 해제로 6월 이후에 경기가 회복해 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비침
 - 고용정세는 유효 구인배율 저하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설비투자도 최근 약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하향조정 했음
 - 감염이 확대된 유럽과 미국 쪽의 수요 침체로 수출은 ‘최근 감소’에서 ‘급속히 감소’로 하향 조정하였음
- 도쿄도는 6월 1일부터 극장, 쇼핑몰, 학원, 체육관 등의 영업을 인정하는 ‘2단계’로 전환하는 방침을 정함 (마이니치신문, 20.5.29)
 - 도가 휴업 요청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최근 1주일간의 신규 감염자 수가 ‘하루에 20명 미만’은 밀돌고 있고, 도내 의료 체제도 유지되고 있음
 -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6월 1일부터 ‘2 단계’로 전환하기로 판단함
 - 스포츠 시설에서는 관객석 부분의 사용도 가능하게 됨

-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등 구조 전환엔 시간이 걸릴 것 (NHK, 20.5.26)
 - 공급망을 둘러싸고 COVID-19 감염 확대로 중국으로부터의 자동차 부품 등의 공급이 막혀, 자동차회사가 국내 생산을 정지하는 등의 영향이 생겼음
 - 아소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각 기업은 부품을 조달하는 나라나 장소를 가능한 한 분산해 안전율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승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 5G 및 드론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법률이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함 (NHK, 20.5.27)
 - 새로운 법률에서는 5G와 드론을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설비 투자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감세나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융자 등으로 지원함
 - 특허진수 및 시장점유율에서 중국 기업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안전보장 관점에서도 국내 메이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적임

□ 한일 협력 관련 동향

- 한일 양국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교류 (마이니치신문, 20.5.4)
 - COVID-19 감염 확대로 온라인 상에서 한일 양국 대학생이 교류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도쿄도)의 국제 교류 사업이 연기되었으나, 학생들이 인터넷 전화 앱 스카이프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냄
 - 4월 20일부터 9일간 총 118명이 참가하였으며, 희망자가 편리한 시간에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구조로 진행됨
 - 황금연휴 후에도 실시 예정이며, 참가자의 한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
 - 이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도 인터넷을 통해 교류할 수 있어 온라인 교류는 연결을 끊지 않는 대처방안으로서 주목받음
- COVID-19 감염 확산에 따라 인근 국가 간 협력의 맹점이 드러남 (닛케이신문, 20.5.8)
 - 일본과 중국은 4월 21일 외무대신, 30일 외무차관 간에 전화 협의를 하여, 마스크 등 의료관련 물품을 원활하게 수출입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인
 - 한편, 한중일 3개국은 3월 외무대신 협의에서 보건대신 회합의 조기 개최에 일치했지만, 1개월 이상 지나고도 열리고 있지 않음
 - 주변 여러 나라가 모여 감염증 대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유럽인데, EU와 가맹국이 가지는 권한 중 사회보장 등은 각국의 권한으로 공중위생의 권한을 각자 갖고 있어 유사시 EU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음
 - 지역 공동체의 권한 강화가 인근국 감염증 확대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견해가 있음

- 일본도 계속되는 COVID-19 대응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2019년 일본 입국자 수는 1위가 중국 959만 명, 2위는 한국 558만 명으로 대만과 홍콩을 더한 동아시아가 전체의 70%를 차지함
- 한중일은 2007년부터 매년 보건대신들의 회의를 매년 열고 있으며, 19년 한중일 정부 간에 핫라인을 창설하는 방향에 합의했음
- 한중일 협력이 늦어지는 것은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이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음

‘지역연합’ 등의 주된 대처	
EU	- ‘시민보호 메커니즘 제도’를 바탕으로 이탈리아에 의료진과 물자를 제공 - 이달 하순까지 마스크, 방호복 등 역외 대상 수출을 제한
ASEAN	신형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기금을 만들기로 함
아프리카연합(AU)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씨와 연계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가맹국에 마스크 및 인공호흡기를 제공
일중한(日中韓)	보건장관 전화 협의를 조정함

- 급성백혈병 한국인 어린이 인도에서 일본행 임시편으로 귀국 (요미우리신문, 20.5.8)
 - 인도 체제 중 급성 백혈병이 발병했지만, COVID-19 영향으로 귀국할 수 없었던 한국인 어린이가 일본 정부의 협력으로 5일 귀국함
 - 인도는 국제선 운항을 중지하고 있어서 출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인도한국 대사관이 각국에 귀국지원을 요청하던 중에 일본대사관이 4일 하네다공항 행 일본인 전용 임시편에 좌석을 마련해 줌
 - 일본 측은 비자발급이나 검역면제에도 협력하여, 어린이는 5일 나리타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함
 - 한일양국은 아프리카 등에 고립되어 있던 양국 국민을 서로의 전용기에 동승시키는 등 협력을 하고 있음
 -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인 어린이 본국 귀국에 대해서 한일관계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말함
- COVID-19 대응에 대한 한미일 등 7개국 외무장관 화상 회의 (아사히신문, 20.5.12)
 - 미국 제안으로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이스라엘이 참가하여 감염 확대 방지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연계를 확인함
 - 일본 외무성 모기 토시미쓰 외상은 각국이 자유, 투명, 신속한 형태로 정보나 지견을 공유해야 한다며 개발도상국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함
- 주일 한국기업연합회가 도쿄보험협회에 방호복 1천벌 기부 (아사히신문, 20.5.16)
 - 1993년 설립되어 270여 개사가 참여하는 주일 한국기업연합회(韓企連)는 도쿄보험협회(東京保険協会)에 방호복 1천벌을 기부했고, 도쿄도에도 2,300벌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함
 - 한기련은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 때에도 피해지역에 성금을 전달했음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국내 기업 동향

- 중국의 보복 소비 움직임으로 일본 화장품 메이커 매출 회복 (NHK, 20.5.22)
 - 중국에서는 경제활동 재개로 지금까지 쇼핑을 자제하고 있던 사람들의 보복 소비 움직임을 볼 수 있음
 - 중국에서의 매출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시세이도는 금년 1월~3월 중국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5.2% 감소하였는데,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지난달 COVID-19 감염 확대 이전 수준까지 매출이 회복되었다고 함
 - 코세도 중국 내 4월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함
- 메이커 각사가 공장의 가동 정지나 생산 축소를 계속하고 있음 (마이니치신문, 20.5.27)
 -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는 전면 해제됐지만 생산 활동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도요타자동차는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공장의 생산조정을 6월 이후에도 계속함
 - 자동차 등의 수요 감소는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공장은 3밀(밀폐, 밀집, 밀접)이 되기 쉬운 관계로 감염자가 나와 휴업한 기업도 많은데, 각사는 경제활동 재개에 즈음해 경단련이 발표한 지침에 따라서 대책에 임하고 있지만 QR코드를 활용하는 등 독자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있음
 -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경단련의 지침에 의하면 제조현장용 지침에서 텔레워크와 시차출근 등으로 통근빈도를 줄이고, 자가용 출퇴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근무 중 일정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과 정기적인 손 씻기, 생산설비 패널이나 레버의 정기적 소독, 공구 공유의 회피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이동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계속 축소하는 주요 기업들	
도요타	4월부터 각 공장 정지 및 생산라인 일부 휴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6월에도 생산조정 계속
캐논	4월부터 토치기현내의 디카용 렌즈 공장을 정지, 6월부터 전면 재개
브리지스톤	5월 하순 이후, 국내 12공장에서 자동차 및 항공기의 타이어 생산을 축소, 6월 상순 이후는 미정
시티즌시계	4월부터 6월 하순까지 매주 금요일 공장 종업원 80%를 대상으로 일시 귀휴를 실시하고, 생산조정

-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이 확산되고 있음 (닛케이신문, 20.5.28)
 - 5월 현재 심야를 중심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대기업 3사의 점포가 6개월 전부터 15배 증가함
 - 심각한 일손 부족과 COVID-19 영향에 의한 야간 외출 감소로 심야 영업을 어려워졌기 때문임
 - 시간단축 점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단축 영업은 편의점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흔들게 됨
 - 편의점 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총이익(粗利)의 일정 비율을 경영지도료로 받는데, 영업시간을 단축하면 지도료도 줄어들게 됨
 - 배송의 경우에도 심야 영업 점포가 줄어들면 트럭의 증편 등 물류의 재검토가 불가결해짐

□ COVID-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COVID-19 감염 확대에 영향을 받고 있음 (NHK, 20.5.2)
 - 일본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중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100여개사 중 56.8%가 COVID-19 감염 확대에 의한 경영 영향이 ‘이미 생기고 있다’라고 대답하였음
 - 일본상공회의소는 각지의 회의소 창구에서 자금유통에 관한 상담 접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에도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라고 함

□ 기술개발 관련 동향

- 차세대 축전지가 실용단계 (닛케이신문, 20.5.10)
 - 도쿄대학에서 창업된 엑셀기·파워·시스템즈(エクセルギー・パワー・システムズ, 도쿄·분쿄구)는 4월, 아일랜드에서 축전지를 사용한 전력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정전을 방지하는 백업 전원으로서 공장이나 상업 시설 등에 설치함
 - 니켈수소전지 내에 열교환기 기능을 도입하여, 고장의 원인이 되는 열을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급속 충방전을 실현
 - 엑셀기는 아일랜드 현지 송전회사에 축전 시스템을 납품해 전력 수급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
 - 후지경제에 의하면, 30년의 세계 대형축전지 시장은 약 1조 9천억 엔으로 18년 대비 2.3배로 증가
 - APB(도쿄·치요다구)는 도전성의 수지를 사용한 전수지(全樹脂)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리튬이온 전지보다 구조를 쉽게 만들어 안전성을 높였음
 - 코넥스시스템즈(コネックスシステムズ, 교토·세이카쵸)는 ‘서플 배터리’라고 부르는 차세대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철과 수증기를 반응시켜 대용량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충방전할 수 있으며 22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세계 전지 시장은 2000년대까지 일본기업이 독점해 왔지만, 리튬이온 전지에서는 코스트가 낮은 중국이나 한국 기업에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비대면 서비스로의 진화

- 기업의 텔레워크 도입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 판매 시작 (닛케이 신문, 20.5.8)
 - 아이아이넷세이동화손해보험(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損害保険)과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은 공동으로 텔레워크 도입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 판매 시작
 -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직원 노무 관리에서 발생하는 배상까지 폭넓게 배상함
 - 아이아이넷세이동화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노무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사이버 보안 보험의 가입수는 그것의 10% 이하에 머물고 있음
 - 재택근무의 확대로 보안 대책 미비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재택근무 도입을 촉진시킴
- 평균 급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IT를 활용하여 교육 및 계약업무 등 서비스를 진화시키고 있는 기업으로 나타남 (닛케이신문, 20.5.18)
 - 매출액 100억 엔 이하의 중견 상장 기업 ‘NEXT1000’ 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평균 급여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개 기업은 IT를 활용하여 연수 및 계약 업무 등 서비스를 진화시키고 있는 기업으로 나타남
 - 견조한 실적을 배경으로 직원들에게 환원을 늘리는 경우가 눈에 띄는데, 급여의 증가는 고정비가 늘면서 눈앞의 이익에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만, 직원 유지 및 동기 향상을 통해 미래의 경쟁력으로 이어짐
 - 사례 중 하나로 ‘변호사닷컴(弁護士ドットコム)’ 이 다루는 전자 계약 서비스 ‘클라우드 싸인’ 은 날인 대신 인터넷으로 계약 절차가 이루어지며, 원격근무의 보급 등으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됨
-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아시아 최대급 전자기기 전시회 CEATEC가 온라인 개최 (NHK, 20.5.25)
 - COVID-19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CEATEC가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의 전시회를 취소하고 온라인에서 개최하기로 함
 - CEATEC는 최신 전자기기 등이 모이는 아시아 최대 전시회로 지난해 787개 국내외 기업 및 단체가 참가해 14만여 명이 방문했음
 - COVID-19의 영향으로 9월에 예정되어 있던 ‘도쿄 게임쇼’ 도 통상적인 전시회를 취소하고 온라인 개최로 전환할 방침을 결정하고 있음

□ 한국 진출 일본기업 동향

- 일본 의류 브랜드 GU, 한국의 총 3개 점포 폐점 (아사히신문, 20.5.22)
 - 일본 패스트리테일링 산하 저가 의류 브랜드 GU는 한국 국내 3개 매장을 8월 전후에 폐점하기로 21일 밝힘
 - 한일 관계 악화에 수반하는 판매 부진이나, COVID-19의 영향 등으로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함
 - 한국에 있는 총 179개 유니클로 매장에는 변경이 없다고 함
- 한국 불매 운동에 대상트 18년 만에 적자 (산케이신문, 20.5.22)
 - 대상트의 영업실적이 18년만에 적자가 되었는데, 이는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이 한일 관계 악화에 의한 불매 운동 등으로 고전하고 국내시장도 COVID-19에 의한 인바운드 감소 등으로 침체했기 때문
 - 대상트는 한국 편중의 사업 구조를 재검토해, 중국 사업의 강화를 진행하고 있음

□ 한일 기업 협력 관련 동향

- 샤프가 연내에 삼성에 패널 출하 재개 전망 (산케이신문, 20.5.2)
 - 샤프가 연내에 한국 삼성전자로의 액정 패널 출하를 재개할 전망으로, 샤프의 지분법적용회사인 사카이디스플레이프로덕트(堺ディスプレイプロダクト, SDP)가 공급할 것으로 보임
 - 삼성용 출하가 본격화되면, 고전이 계속되는 SDP의 채산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 있음
 - 삼성과는 SDP가 판매 교섭에서 패널가격 인상을 시도하다가 타협이 되지 않아 2017년 초순 경 거래가 중지되어 관계가 냉각되었음
- 한화Q셀즈재팬(ハンファQセルズジャパン)과 마루베니신전력(丸紅新電力)은 일본 국내 가정 대상 서비스로 협업(닛케이신문, 20.5.24)
 - 태양광 패널 세계대기업인 한국의 한화Q셀즈는 일본 종합회사 마루베니 산하의 신전력과 공동으로 태양광 패널의 무상설치와 전력판매 사업을 시작
 - 각 가정은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을 Q셀즈로부터, 그 이외의 필요한 전력을 마루베니 계열로부터 구입
 - Q셀즈는 전력의 판매수입으로 패널 설치비용을 회수함
 - Q셀즈는 지난해 9월 태양광 무료설치를 시작했으며 이번 협업으로 판로를 확대하며, 마루베니신전력은 가정용 전력 판매량의 확대에 연결시킴

Ⅲ. KJCF & KJE News

「2020 기업현장 단기기술포럼 참가기업 모집」

- 모집규모 : 국내 중견·중소기업 약 15개사
- 모집기간 : 2020년 6월 8일(월) ~ 6월 26일(금)
- 지도기간 : 2020년 8월 31일(월) ~ 9월 25일(금) 중 4일간
- 지도내용 : 제조현장 예로기술에 대한 문제확인, 원인분석, 해결책 제시 / ‘온라인 (화상)지도’ 형태로 진행
- 참가비 : 40만원/1사(소요비용의 약 10%)
- 신청마감 : ~ 6월 26일(금) 18:00 홈페이지 접수분
- 문의처 : 산업협력실 기술지도팀 TEL: 02-3014-9815
- 참가 신청하기 ⇒ https://www.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83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시장 진출전략 화상 세미나 개최 안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시장 진출전략 화상(Virtual)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추어 한국 기업들에게 일본의 현지동향과 핵심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한일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시장 진출전략 화상(Virtual)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COVID-19 확산 방지를 고려하여 Youtube 라이브로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무역업에 임직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미나 개요

일시 : 2020년 6월 30일(화) 14:00 ~ 16:30
대상 : 일본 진출 희망기업 임직원
주최 : 한국무역협회
후원 : 한일경제협회
채널 : Youtube 실시간 방송
 * 참가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접속 url 제공 예정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인사말	
14:05~14:10	코로나19 공동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한·일 협력 (동영상)	
14:10~14:30	코로나19 이후 일본경제 전망 및 진출전략 → 최근 정치/경제동향, 코로나19 이후 일본비즈니스 환경 → 일본 시장 및 기업특성,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오대현 → 경희사이버대 교수 → 前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4:30~14:40	질의 응답	
14:40~15:10	온라인 마켓을 통한 시장진출 → 일본 현지와 온라인 마켓 동향 → 일본 온라인 마켓을 통한 일본시장 본격진출 → 온라인 마켓에서 한국기업의 활약사례	최범 → 라쿠텐(본사) 담당자
15:10~15:20	질의 응답	
15:20~15:40	신흥시장(아세안)에서의 한·일 진출비교 → 한-아세안, 일-아세안 관계 비교 → 양국 기업들의 아세안시장 진출현황 및 전략비교	이충열 → 고려대 교수
15:40~15:50	질의 응답	
15:50~16:20	한·일 미래세대가 추구할 양국협력 → 양국 미래세대의 협력분야	타나카 마사시 → 한일축재(한·일)당 운영위원장
16:20~16:30	질의 응답	

* 프로그램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http://www.kjc.or.kr/jpinfo/report.jsp>)

-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2020-05-25)
- [일본발(發) 연구리포트] 2020·2021년도 일본의 경제전망(2020-06-09)
- [일본발(發) 연구리포트] 리모트워킹을 저해하는 종이 및 인감문화에서의 탈각(2020-06-04)
- [일본발(發) 연구리포트] 일본의 자동운전 산업 현황과 사이타마현 기업들의 자동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2020-06-03)
- [일본발(發) 연구리포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진하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2020-06-02)
- [일본발(發) 연구리포트] 코로나19 영향 관련 일본 경기 조사(2020-06-01)